



마지막 모습...DJ 입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사흘째인 20일 연세 세브란스병원에서 천주교 의식에 따라 진행된 입관식을 지켜보고 있던 이희호 여사가 고개 숙여 흐느끼고 있다.

김대중 前 대통령 國葬 ▶ 2·3·4·5·6·9·15·16면

향을 출발, 귀환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김기남 비서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남 실무인 김양건 부장이 조문단에 포함됨에 따라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와의 회동 가능성이 주목된다.

천혜상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 조문단과 당국간 접촉 계획을 묻는 질문에 “조문을 위해 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도의 우리 당국과 면담이 계획된 것이 없고 요청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기남 당 비서를 단장으로 한 ‘특사 조문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21일부터 1박2일간 서울을 방문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연합뉴스

## 정치권 화해가 온국민 화해되게



### ② 지역감정 타파 이번이 기회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는 우리에게 맹국적 지역감정 타파라는 수제를 남겼다. 평생을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힘써온 한 지도자의 유업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평생의 라이벌이었던 김대중(DJ), 김영삼 두 전직 대통령이 DJ의 죽음을 앞두고 화해했다. 또 가해자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찾아와 DJ를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평가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은 이를 몇몇 인사들의 화해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화해 정신을 지역감정 타파로 이어가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

기로 하는 등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면서 동서화합 분위기가 한껏 고무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은 이번 국장을 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무엇보다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제도 정착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에서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의 메시지를 던져 정치권이 이를 잘만 활용하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학계에서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구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행정구역 개편도 효율성에 만족하지 말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에 마련된 김 전 대통령 빈소에 찾아온 한 조문객은 “여권의 진정한 성찰을 바탕으로 정치권이 한 마음이 되면 공존과 화합의 정치로 지역갈등을 극복하라는 DJ가 남긴 무언(無言)의 유훈(遺訓)을 이어받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화합과 소통의 관건인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여권

의 자세 변화가 먼저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권력을 가진 편에서 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보였던 독선과 오만의 자세를 버리지 않고는 여야가 한 마음이 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학계에서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구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행정구역 개편도 효율성에 만족하지 말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해 온 육로통행 및 체류 관련 제한조치를 21일부로 해제하겠다고 20일 남측에 통보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기술적 문제로 실제 제한이 풀리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측이 이날 오후 5시 27분께 군 통신으로 통지문을 보내 6·15와 10·4 선언 정신에 따라 8월 21일부로 ‘12·1 조치’를 해제한다고 통보했다”면서 “남측 해사당국자 앞으로 통지문이 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은 20일 김기남 노

## 北, 육로 봉쇄 조치 해제

김기남 당 비서 등 조문단 6명 오늘 입국

김대중 前 대통령 國葬 ▶ 2·3·4·5·6·9·15·16면

동당 중앙위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포함된 6명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명단을 남측에 통보했으며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키로 했다.

북측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이날 김대중 평화센터 측에 김 비서와 김 부장, 원동연 아태위 실장, 맹경일 아태위 참사, 리 현 아태위 참사, 김은주 북한 국방위 기술일꾼 등 총 6명의 조문단 명단을 통보했다고 통일부와 김대중 평화센터가 밝혔다.

“남측 해사당국자 앞으로 통지문이 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들은 21일 오후 3시 10분 특별기 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다음날 오후 2시 김포공항

한국은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해 온 육로통행 및 체류 관련 제한조치를 21일부로 해제하겠다고 20일 남측에 통보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기술적 문제로 실제 제한이 풀리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측이 이날 오후 5시 27분께 군 통신으로 통지문을 보내 6·15와 10·4 선언 정신에 따라 8월 21일부로 ‘12·1 조치’를 해제한다고 통보했다”면서 “남측 해사당국자 앞으로 통지문이 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은 20일 김기남 노

위한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 도장화해야 한다”고 북에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문제 삼으며 당국간 소통채널인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를 차단했다.

한국은 작년 11월 12일부터 단절된 상태인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 대신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통지문을 전달했으며 북측은 이를 수령해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이와 함께 한적은 통지문에서 “이산가족 상봉 협의에 따라 정부와의 조율을 거친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은 작년 11월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문제 삼으며 당국간 소통채널인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를 차단했다.

한적은 작년 11월 12일부터 단절된 상태인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 대신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통지문을 전달했으며 북측은 이를 수령해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한국은 작년 11월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문제 삼으며 당국간 소통채널인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를 차단했다.

한적은 작년 11월 12일부터 단절된 상태인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 대신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통지문을 전달했으며 북측은 이를 수령해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한국은 작년 11월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문제 삼으며 당국간 소통채널인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를 차단했다.

한적은 작년 11월 12일부터 단절된 상태인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 대신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통지문을 전달했으며 북측은 이를 수령해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한국은 작년 11월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문제 삼으며 당국간 소통채널인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를 차단했다.

한적은 작년 11월 12일부터 단절된 상태인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 대신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통지문을 전달했으며 북측은 이를 수령해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한국은 작년 11월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문제 삼으며 당국간 소통채널인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를 차단했다.

한적은 작년 11월 12일부터 단절된 상태인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 대신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통지문을 전달했으며 북측은 이를 수령해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한국은 작년 11월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문제 삼으며 당국간 소통채널인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를 차단했다.

한적은 작년 11월 12일부터 단절된 상태인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 대신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통지문을 전달했으며 북측은 이를 수령해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한국은 작년 11월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문제 삼으며 당국간 소통채널인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를 차단했다.

한적은 작년 11월 12일부터 단절된 상태인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 대신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통지문을 전달했으며 북측은 이를 수령해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한국은 작년 11월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문제 삼으며 당국간 소통채널인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를 차단했다.

한적은 작년 11월 12일부터 단절된 상태인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 대신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통지문을 전달했으며 북측은 이를 수령해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한국은 작년 11월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문제 삼으며 당국간 소통채널인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를 차단했다.

한적은 작년 11월 12일부터 단절된 상태인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 대신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통지문을 전달했으며 북측은 이를 수령해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한국은 작년 11월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문제 삼으며 당국간 소통채널인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를 차단했다.

한적은 작년 11월 12일부터 단절된 상태인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 대신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통지문을 전달했으며 북측은 이를 수령해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한국은 작년 11월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문제 삼으며 당국간 소통채널인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를 차단했다.

한적은 작년 11월 12일부터 단절된 상태인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 대신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통지문을 전달했으며 북측은 이를 수령해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한국은 작년 11월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문제 삼으며 당국간 소통채널인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를 차단했다.

한적은 작년 11월 12일부터 단절된 상태인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 대신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통지문을 전달했으며 북측은 이를 수령해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한국은 작년 11월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문제 삼으며 당국간 소통채널인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를 차단했다.

한적은 작년 11월 12일부터 단절된 상태인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 대신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통지문을 전달했으며 북측은 이를 수령해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한국은 작년 11월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문제 삼으며 당국간 소통채널인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를 차단했다.

한적은 작년 11월 12일부터 단절된 상태인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 대신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통지문을 전달했으며 북측은 이를 수령해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한국은 작년 11월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문제 삼으며 당국간 소통채널인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를 차단했다.

한적은 작년 11월 12일부터 단절된 상태인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 대신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통지문을 전달했으며 북측은 이를 수령해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한국은 작년 11월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문제 삼으며 당국간 소통채널인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를 차단했다.

한적은 작년 11월 12일부터 단절된 상태인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 대신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통지문을 전달했으며 북측은 이를 수령해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한국은 작년 11월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문제 삼으며 당국간 소통채널인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를 차단했다.

한적은 작년 11월 12일부터 단절된 상태인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 대신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통지문을 전달했으며 북측은 이를 수령해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한국은 작년 11월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문제 삼으며 당국간 소통채널인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를 차단했다.

한적은 작년 11월 12일부터 단절된 상태인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 대신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통지문을 전달했으며 북측은 이를 수령해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한국은 작년 11월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문제 삼으며 당국간 소통채널인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를 차단했다.

한적은 작년 11월 12일부터 단절된 상태인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 대신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통지문을 전달했으며 북측은 이를 수령해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한국은 작년 11월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문제 삼으며 당국간 소통채널인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를 차단했다.

한적은 작년 11월 12일부터 단절된 상태인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 대신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통지문을 전달했으며 북측은 이를 수령해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한국은 작년 11월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문제 삼으며 당국간 소통채널인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를 차단했다.

한적은 작년 11월 12일부터 단절된 상태인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